

# 現代住居建築論을 통해 본 外觀表現에 관한 研究

(大邱地域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expression in elevation in through theory of contemporary house  
- focused on the Taegu province -

鄭 明 燮\*  
Chung, Myung Sup  
張 榮 秀\*\*  
Jang, Young Su

---

## Abstract

The attempts in pursuit of humanit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brought about meaning to the 'Locality' as a main conception which opens new potentiality at this confused period. Contemporary housing design should meet the indigenous 'Locality' of the building sites environment. An adequate adaptation to the 'Locality' will bring more efficient use, lower running-costs, and longer durability of original beauty of the houses. Our contemporary houses should admit general requirements at this time and they should be expressed through not only space but also form and design. Finally, we must find the direction of elevation planning of Korean contemporary houses, inquiring into design elements of 'Locality' in the view point of transformation and analysing how the elements are represented in contemporary houses. This research was aimed to find how to optimise an elevation design of houses in adapting to the Korean indigenous 'Locality' in order to create a domestic housing design suitable for Korean life style, however, one cannot ignore elements of the Korean traditional mode of living.

---

\* 정회원, 양산전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 정회원,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강사

## 1. 序 論

### 1-1. 研究 目的

모든 역사상의 운동에서 발단, 전개, 쇠퇴라는 전형적인 삼분법은 아직도 그 효용성을 잃지 않고 있다. 20세기 後半의 現代建築도 모더니즘의 회의 속에서 새로운 思潮들의 부상으로서 중요한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現代建築物의 동향은 보편적 문명으로서의 現代의 기술적 진보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地域의 造形的, 技術的 傳統의 내용 어느 한 쪽에 극단적으로 치중하지 않는 경향으로 부터 비판적 地域主義라고 할 수 있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다.

建築에 있어서의 地域性的의 추구는 일차적으로 생활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조형감각을 현대의 기술과 재료로서 반영해 나가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문화가 바탕이 된 住居建築은 그 類型과 機能에 있어서, 時代와 地域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화나 자연으로의 출발과 회귀의 장소임은 불변의 사실이다. 어느 時代에서든 한 민족의 생활문화의 표현이 다른 建築物보다 住居建築에서 그 정신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住居建築이 가장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또 강한 연속성을 갖는 有機體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 입각한 본 연구는 現代建築의 動向을 地域的, 歷史的 문맥의 확립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내재된 地域性的의 의미를 전개하여 現代 韓國住居建築에 나타난 地域性 표현요소를 분석 및 體系化시켜 우리의 住居建築이 지향해야 할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2. 研究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現代建築의 다양한 시도 속에 나타난 여러 建築思潮들의 기저에 내재된 보편적 특성을 地域性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주거의 의미와 住居形態의 형성 단계에 관계될 수 있는 地域性的의 개념을 전개

시킨 다음, 事例調査를 통하여 地域性 표현요소를 분석 하여 우리의 住居建築이 담고 있던 고유한 건축적 언어와 환경을 밝혀내어 現代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現代建築의 思潮 속에 나타난 地域性的의 概念 및 建築的 표현을 韓國現代의 住居建築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며, 住居建築의 형태에 있어서도 外觀의 形態로 국한하였다.

한편 事例調査의 對象住宅은 1980年代 大邱地域에 건립된 많은 住宅들 중에서 비교적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 5個所를 설정하여 사실적 근거로써 검증해 보았다.

## 2. 地域性的의 概念과 그 定立

建築에 있어서의 地域性的의 개념은 단지 모더니즘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風土의이란 이름으로 낯설고 신기한 건축만을 의미하거나, 傳統性的의 표현이라는 명목하에 傳統的 어휘를 어설프게 인용하는 복고적인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다른 여러가지 이름의 建築思潮나 建築理念도 마찬가지로 지역성의 개념이 건물에 표현되는 부분적이거나 이질적인 현상 그 자체만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한 시대의 건축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체계로서 정의 되어져야 한다.

現代建築에 있어서 지역성의 의미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확장된 포괄적인 의미로써 수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축물이 한 시대의 人文社會的, 物理的 환경을 반영하는 척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現代建築은 과거의 近代建築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혹은 무시 하였던 地域的, 歷史的 맥락의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人間性的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추상적 실체로서 地域性을 반영하게 되었다.

現代建築은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건축의 이념을 전환시켜 분석적, 기계적사고를 人文主義的 사고로 전환시켰으며, 종전에 분리되었던 사고와 감

정의 체계를 새롭게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이상론에서 현실론으로 건축가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소 혼란스러운 다원론적 상황의 공통주제는 風土建築에의 관심과 콘텍스트의 고려, 장소성의 인식으로 묶어지며, 이러한 기반에 내재된 개념을 바로 地域性이라고 볼 수 있다.

地域性의 추구는 이상의 관련개념과 목표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즉 특정 人間集團의 物理的, 社會的, 文化的 思想에 대한 여과작용을 함으로써 실제 역할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地域性의 여과작용에 의해 걸러져 나온 결과, 즉 人間과 文化의 아이덴티티확보, 인간환경에의 적합성, 가능성의 증가로 인한 문화영역의 확장은 現代建築의 動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동시에 풍부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하겠다.

### 3. 住居建築의 特性和 地域性 表現

住居建築의 地域性은 인간이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것이므로 생활의 경험에서 획득된 지혜가 축적되어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또한 현재와 미래의 진보에 대한 근본적인 추진력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住居建築의 地域性에 대한 이해는 현대의 주거건축 계획에 있어서도 훌륭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3-1. 住居의 概念

하이데거(M.Heidegger)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적인 공간이 갖는 실존적인 성질을 강조하면서 주거에 대해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 장소와 공간과의 관계는 주거에 존재 한다.” “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세울 수가 있다” “주거란 실존의 본질적인 특질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슐츠(N.Schulz)도 주거를 장소가 지배적인 곳으로, 실존의 중심적인 장소, 즉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

의 세계내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는 장소로 설명하고있다. 또한 生活空間인 주거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속감, 안전감, 편안함 및 친밀감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生活空間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기본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생물학적인 영향, 한 집단의 가치인식을 공유하는 체계를 표현하는 文化的 영향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체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 체계를 자신의 방법으로 채색하여 개체성을 표현하는 개성적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질체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가치,취향,목적 그리고 이념은 유사하여 住居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3-2. 住居建築 構成要素의 意味

住居建築 구성요소들의 의미는 지각되는 특성 에 따라 고찰하여 볼 수 있는 바, 개별적 특성과 상관적 특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개별적 특성은 住居建築을 실체화하기 위해 구사되는 물적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고유한 형태,재질,크기 등의 물리적 성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사되는 물적 요소들의 상호관계 및 구사된 물적 요소들에 의한 비물적 요소들의 분리 및 연결상태가 인간의 住生活에서 추상적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경험될 때 지각되는 성질을 상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住居建築 구성요소들의 의미와 특성은 인간의 지각 행위에 따라 정의 될 수 있는 바, 1차원적인 지각은 무한공간과 구별되는 공간한정요소의 의미로서 3차원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가시적인 물적요소들 하나하나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住生活을 통한 住居建築의 공간성격 및 형태에 대한 지각은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가시적인 물적 요소 이외에 비가시적이어서 시각 이외의 감각기관에 의해 인식되는 비물적 요소와 사고에 의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추상적 요소들과의 유기적 관계에 따른 상관적 특성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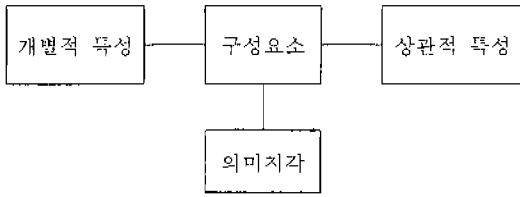


그림 1. 構成要素의 意味

住居建築의 공간성격 및 형태는 인간의 주거생활의 적합성(habitability)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형성하는 住居建築 구성요소의 상관적 관계에 따른 특성은 인간의 住居生活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3. 住居建築의 地域性

住居建築은 주거개념의 형성과 그 개념에 부합하는 주거의 실제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거의 개념은 주거의 기능 및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주거의 공간성격 및 형태로 정의 된다. 주거의 실제화는 住居建築의 구성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 요소는 물리적으로 외부와 구분되는 內部空間을 형성함과 동시에 주거건축에 공간성격 및 형태를 부여한다.

住居의 개념과 구사되는 구성요소들의 제반 성질은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직면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자연적 요인은 가장 기본적이며 시대적 변화가 작은 요인으로 氣候, 地勢, 風土, 材料, 自然環境 등의 지역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인문적 요인은 자연적 요인에 차선하여 발생하지만, 주거건축의 形態와 構成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서 社會的인 제반관계가 증대됨에 따라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여러 요인들은 사회제도, 풍습, 종교, 민간신앙, 민족성 등이며 이에 따라 住居形式이 채택되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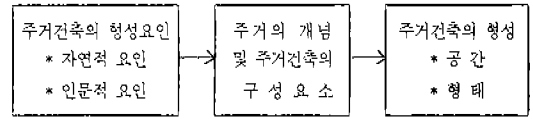


그림 2. 住居建築의 形成段階

따라서 住居建築은 時代 및 地域에 따른 자연적, 人文的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이에 따라 형성되는 주거개념에 의해 주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간성격 및 형태가 정의되며 구성요소들에 의해 실제화된다. 이때 형성된 주거건축은 다음의 住居建築에 영향을 주게되며,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지역의 住居建築 文化를 형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 4. 住居建築의 地域性 表現要素

### 4-1. 自然的 環境에 의한 形態構成要素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물리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형성된 住居形態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地域의 自然環境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고유의 형태를 발전시켜 왔으며 地域的인 자연 환경에 적응한 地域的 특성을 지닌 건축의 예는 전세계에 걸쳐 쉽게 발견된다. 주거의 기능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중요성과 용도가 변화하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항상성을 가지므로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여과기로서의 물리적 기능은 시대를 초월한다. 다시 말해 住居形態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정복한 인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체로서 존재한다. 自然環境으로서의 기후는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모든 문명의 특정한 환경을 만들며, 기후의 미세한 변화가 형태나 조직이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만든다. 따라서 기후는

人工形態의 창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은신처에서의 기후적 불가피성은 건축형태에 그대로 반영된다. 즉 건축은 기후적 영향요소인 열, 추위, 지면과 대기의 복사열, 바람, 광선과 그 밖의 다른 환경자극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建築物의 각부는 환경 제어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住居建築 구성요소중 自然的 環境에 영향을 받아 뿌리깊게 지속되어 온 형태요소는 지붕, 처마, 벽체(특히 외벽부), 개구부 등을 들 수 있다.

#### 4-2. 象徴的 意味에 의한 形態構成要素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는 예술의 의미는 외적인 수단들이나 결과들이 아니라, 예술은 독특한 인간적 요구를 재현하며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인 상징화의 능력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건축에 있어서의 미와 효용, 상징과 구조의 의미와 실제적 기능이 어떠한 形式的 분석으로서도 거의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것은 곧 건축에서의 상징과 기능의 효과적인 조화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실제적인 도구인 동시에 상징체계이다. 즉, 건축은 물리적 기능의 충족은 물론 인간의 본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체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傳統住居建築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근처에 어떤 사상들이 문화사적 배경을 이루어 그 시각적인 형태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住居建築의 상징성은 上, 下階層間的 신분적 위계질서와 남녀간의 성적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상징성은 지붕, 기둥, 기단 및 계단, 초석, 창호 등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으며, 現世的 표현과 來世的 표현 등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 5. 大邱地域 住居建築의 現代的 動向

주거는 한 시대의 社會的 變遷이나 문화적 특성 혹은 생활양식이 항상 반영되어 왔으며, 주거형태 역시 각 시대의 지역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점진적으로 변천하여 왔다. 住居生活이란 주거의 주제인 인간과 외부환경 조건과의 상호작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생활의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地域性的 반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80年代의 大邱地域 住居建築을 중심으로 現代的 動向을 고찰하였으며, 주거생활의 변화를 住居意識, 住居環境, 住居形態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內部空間의 구성 역시 외관형태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관련요소들을 外觀形態의 변화와 함께 다루었다.

### 5-1. 住居意識

住居意識과 住居環境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인간행위가 住居形態로 구체화되어가며, 住居意識도 그 시대의 地域性 변화에 따라 바뀌어진다. 과거 우리의 주거의식은 傳統과 관심을 중시하여 획일적 사고에 젖어 있었으나, 점차 서구생활방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게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시되어 왔다. 産業化가 진행되고 都市化 사회가 형성되어 감으로써 과거에 가졌던 地域性的 의미는 새로이 유입된 다양한 재료와 社會, 文化的 요인의 영향으로 축소되어 왔다.

### 5-2. 住居環境

인간은 자신의 주거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의식을 형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居住者의 환경무대인 住居環境의 질적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주거환경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 체계의 한 단위로서 광의적으로는 인간이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有形, 無形의 외부적 조건의 의미를 지니며, 협의적으로는 주택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 외부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住居環境은 단순한 건물과 가로의 결합이 아니라, 構造物, 地面, 空間, 生態系, 氣候 등의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住居環境을 조성하려면 인간의 공간에 대한 요구의 변화, 대지의 조건,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外的環境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80年代의 경우 自然環境에 대한 선호경향은 주택배치에 있어서 좌향과 일조, 채광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었고, 地形的 요소에서는 역시 대지 면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住居形態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 환경으로는 법규적 요인이 있는데, 이 경우 건축면적, 인동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80年代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人爲的 環境要素 중에서는 周邊建物環境에 대하여 건물의 규모와 外觀形態가 신중히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5-3. 住居形態

住居形態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나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이외에도 거주자의 주거형태, 주거가치관, 사회적 유대감, 周邊環境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과 관련되어진다. 인간의 住居形態는 연령, 성, 文化的 가치의 지향요인인 生活樣式, 生活週期, 社會的 지위, 개인의 선호도, 태도 등의 여러 요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住居意識과 周邊環境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생활의 양상을 가르킨다.

60년대 이후 産業化 과정에 의하여 傳統的 도덕과 윤리의 생활가치 기준에 심한 갈등을 야기시켰으나, 80年代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면서 생활상의 정립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大邱의 保守的인 社會的 地域性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住居生活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時代的 潮流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보다는 그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기도 하면서 傳統的인 생활관심을 중시하는 면을 볼 수 있다.

## 6. 住居建築 外觀의 地域性 表現 分析

(표-1) 事例調査 對象住宅

주택명	주택 1	주택 2	주택 3	주택 4	주택 5
외관 형태					
내부 평면					
설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 대구 대명동</li> <li>·건축면적 : 192.71m<sup>2</sup></li> <li>·구조:조적조</li> <li>·마감:붉은벽돌치장쌓기 스페니쉬기와잇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 대구 신암동</li> <li>·건축면적 : 175.49m<sup>2</sup></li> <li>·구조:RC + 조적조</li> <li>·마감:붉은벽돌치장쌓기 스페니쉬기와잇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 대구 대명동</li> <li>·건축면적 : 225.40m<sup>2</sup></li> <li>·구조:시멘트조적조</li> <li>·마감:붉은벽돌치장쌓기 스페니쉬기와잇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 대구 지묘동</li> <li>·건축면적 : 231.11m<sup>2</sup></li> <li>·구조:조적조</li> <li>·마감:장석벽돌치장쌓기 모타르위 흰색 수성페인트, 미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 대구 대명동</li> <li>·건축면적 : 119.79m<sup>2</sup></li> <li>·구조:조적조</li> <li>·마감:붉은벽돌치장쌓기 칼라스톤잇기</li> </ul>

지구상에는 여러가지 地域性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地域性에 대응하는 건축의 모습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建築家は 建築造形의 기본소재를 다룰 때 그 地域의 고유한 獨自性, 自然地勢와 眺望, 文化的 遺産 등의 상호작용을 자유롭게 허용시켜야 하며, 재료나 형태 및 그 배치를 통해 그 地域의 경관에 적합한 형태를 구성시켜야 한다.

住居建築의 外觀 역시 自然的, 物理的, 社會的인 環境 등 地域性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現代 住居建築의 외관에 표현될 수 있는 地域性의 내용을 傳統的인 내용(지붕, 기둥, 처마, 기단 및 계단, 벽체, 창호, 초석)과 現代의 내용(지붕, 처마, 기단 및 계단, 벽체, 창호, 현관)으로 나누어 對象住宅(표-1)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2), (표-3)과 같다.

(표-2) 傳統的 內容의 分析

분석내용	지붕	기둥	처마	기단 및 계단	벽체	창호	초석
주택1	·우진각 지붕 ·전통적 물매유지 (2중형)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충분한 처마길이의 고려로 일조, 강우에의 대응 및 벽의 방수역할을 담당함	·석재를 사용하여 기단과 계단을 구성하여 심원의 장식용 석재와 시각적 통일감을 이루고 있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전통문양의 채택(살창) ·창의 방위는 남향을 주로 채택 ·일조, 조망에 유리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주택2	·우진각 지붕 ·전통적 물매유지(눈썹기와의 경우는 다소 급하다)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처마의 내민 길이는 방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충분함	·석재 계단 ·전통적 기능은 표현되지 않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창의 방위는 동쪽 남쪽에 주로 배치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주택3	·우진각 지붕 ·전통적 물매유지 ·수평선의 강조(단층형)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내민길이는 충분히 고려됨 ·일조, 강우에 적절히 대응	·석재 계단 ·난간의 고려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창호의 틀레를 흰색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명쾌함을 연상 ·조적조 ·창의 방위는 주로 남향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주택4	·곡선적 구성 ·초가지붕의 유추	·목재사각기둥을 외부로 노출 ·기둥하단에 초석설치	·내민길이는 충분히 고려됨 ·모서리 부분의 장식 ·목재사용	·석재 계단 ·조적조의 기단 ·석재 난간	·조적조의 벽체위에 모르타르치장후 흰색 수성페인트 마감	·전통적 문양(따살창)	·방형초석 ·동자주초
주택5	·맞배지붕 형태이나 옳바는 대구의 지역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막공면을 유리창과 목재(미송)로 처리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표-3) 現代의 內容의 分析

분석내용	지붕	처마	기단 및 계단	벽체	창호	현관
주택1	·원형평면의 음충부 상단에는 눈썹기와를 연유 스캐니쉬 기와맞기 ·주변건물과의 시각적 연속성 ·기둥선은 3단으로 강조된 선력구성(내부공간의 레벨차)	·처마길에 단을 두어 형태감 강조함	·곡선적인 진입부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유도	·편미주거건축의 특징인 조적조의 벽체로서 외벽은 붉은 벽돌치장방기로 구성	·재료는 창지대선 유리를 사용하여 내외부 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을 유도 ·입식과 좌식의 혼용적 위치 선정	·지중처마로 캐노피 대체
주택2	·눈썹기와 개별차에 의한 중립 스캐니쉬 기와	·처마의 특이한 형태적 강조는 없음	·현관 앞에 설치 ·내부공간으로의 진입유도	·조적조 ·붉은벽돌 치장방기	·일조조망 ·유리재료의 채택 ·좌식과 입식의 고려	·눈썹기와를 잇는 캐노피
주택3	·주변건물의 맞배지붕과의 대비 ·주변건물의 높낮이보다는 약간 높게 구성	·처마에는 단을 두어 강조 ·원색으로 처리하여 전통적 이미지 강조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기단 및 계단을 플로팅 위치에 구성	·조적조 ·붉은벽돌 치장방기	·유리창호 ·입식생활에 따른 위치선정	·지중처마로 캐노피 대체
주택4	·조적조의 골목과 대비 ·초가지붕의 물매유지	·처마길에 단을 두어 형태감 강조함	·정원과의 공간의 연속성 ·벽체의 복재구성과 석재계단의 대비 ·흰벽면과 시각적 연속성	·조적조 ·전통적 이미지	·유리창호 ·유리재료	·현관을 복층에 두고 있으며 정원은 남쪽에 배치 ·캐노피 설치
주택5	·지붕상부에 일조를 위해 전망 기치 ·지붕물에는 비교적 급하다 ·판라스온 인기	·처마 아래 선충돌을 두어 강우에 대해 ·내민길이는 고려되지 못함	·특별한 표현이 보이지 않음	·조적조 ·적밀문 치장방기	·인조를 위해 지붕의 가장면에 비교적 큰 유리창을 설치 ·주로 입석생활의 고려	·캐노피 설치

## 7. 綜合分析 및 評價

분석의 과정에서 추출된 傳統的, 現代的 地域性 표현내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外觀形態 구성요소

들을 形態, 機能, 材料上的 변화 등으로 분류하여 종합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綜合 分析

분석내용	지붕	처마	기둥	기단 및 계단	벽체	창호	초석	기타
형태상의 변화	평지붕의 형태는 없었으며, 우진각 지붕과 맞배지붕, 유추된 초가지붕등이 분석됨	부연과 서까래는 생략되어 있으나, 처마밑에 단을 두어 형태를 강조한 경우가 있음 곡선미 대신 직선적 구성	기둥이 표현된 예는 하나뿐이었으며, 사각기둥으로 표현됨	기단의 형태는 전체기단과 부분기단으로 되었으며, 필로터 위에 기단이 구성된 예도 있다	주로 조적조의 외벽부와 개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기둥을 벽체로 돌출시킨 예도 있음	창의 위치는 좌·입식 혼용으로 설정 창의 문양은 전통적 문양과 생략된 경우로 조·사됨	자연적인 형태보다는 잘 다듬어진 인공적인 형태로 구성	현관의 발생
기능상의 변화	전통적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대의 요구인자인 주변 건물과의 조화는 수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	전통적인 일조, 강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민 길이가 충분하며, 고려된 것과 현대기술인 홈등을 설치한 것이 있었다	현대기술인 조적조의 벽체가 기둥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주택4의 기둥은 의장적인 효과로서 고려됨	전통적인 방습, 건조, 신분적 질서등의 기능보다는 진입의 용이함이나, 내부공간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심벽구조대신 조적구조로서 단열에 대처함	기후적 조건에 따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유리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유도함	조적벽체로 인하여 기둥과 지면의 지지기능을 상실	내부공간의 진입부로서 현대주거의 특징 우천시에 대비하여 캐노피 설치
재료상의 변화	스페니쉬 기와 잇기 칼라스톤 잇기	처마면은 거의 목재를 사용함	조적조의 벽돌 주택4의 경우는 목재기둥	계단은 주로 석재를 사용하였으나, 기단은 석재와 벽돌의 조적조로 구성됨	벽돌 조적조 외벽; 붉은 벽돌 치장쌓기 모르타르위 흰색 수성페인트	창기보다는 유리를 선호 목재와 알루미늄의 혼용	전통적인 수법대로 석재사용	

지금까지 살펴본 事例調査 對象住宅들의 외관 형태에 나타난 地域性 표현에 대해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傳統的 地域性 표현은 주로 지붕과 기단 및 계단, 창호 등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지붕의 경우는 외관형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다소간 傳統性을 띤 우진각 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초가지붕의 형태로 傳統的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시도한 예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

향은 우리 고유의 地域性이 住居建築에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러한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판단 된다.

2) 外觀形態의 現代的 地域性 표현은 傳統的인 요소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주변건물과의 시각적 연속성의 고려, 형태의 의도적인 강조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現代的인 요구인자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形態要素도 표현되어 있다. 그 예로서 현관의 발생을 들 수 있는데, 현관은 外部에서 内部空間의 진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그 위치



는 대체로 대문과 안방, 거실과의 위치관계에 의해 설정되며, 또한 현관의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지붕 처마를 내어 강우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要素들은 傳統的인 地域性을 수용하면서 現代의 요구인자도 함께 흡수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3) 각 要素들은 形態, 機能, 材料上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形態變化의 경우로서 처마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부연과 서까래는 거의 생략되어 있으나, 처마 밑에 단을 두어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단순화된 형태의 의도적인 강조로 생각되어진다.

機能變化의 경우로는 벽체와 기둥의 상관관계로서 傳統的으로 기둥은 지붕과 지면과의 역학적 관계로 구성되어 왔으나, 現代에는 그러한 기능을 조직조의 벽체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은 거의 생략되어 있거나 의장적인 효과로서 고려되고 있다.

재료상의 변화는 기와, 벽체, 창 의 재료 등에서 나타나며, 傳統的으로 표현되어 왔던 재료의 사물적 표현은 뚜렷하지 않으나, 傳統的인 수법대로 표현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傳統的인 地域性과 現代인 地域性 요구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形態, 機能, 材料上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고유의 地域性 표현이라는 범주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단계에서는 주로 住居建築 外觀의 形態的, 機能的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住居建築 形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內, 外部空間의 상호관계에 의한 지역성 표현의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住居建築 연구에 있어서 지역성 표현의 空間的 접근에 대한 고찰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8. 結 論

韓國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지역성의 의미는 한국적 傳統, 地域性 이라는 자체가 추상적이듯이 우리 민족의 深淵에 흐르는 물줄기와도 같은 것으로서 용어 자체는 규정적이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전통의 의미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므로 건축물로 형상화할 때는 구체적인 表現要素로서 구성시켜야 한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의 추구는 일차적으로 生活文化 속에서 표현되는 造形感覺을 현대의 기술과 재료로서 반영해 나가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어느 시대에서든 한 민족의 生活文化의 표면이 다른 건축물에서 보다 住居建築에서 그 정신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住居建築이 가장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가장 강한 연속성을 갖는 有機體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地域性의 개념과 그 목표는 특정 人間集團의 物理的, 社會的, 文化的 環境에 대한 여과작용을 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地域性의 여과작용에 의해 걸러져 나온 결과, 즉 人間과 文化의 아이덴티티 확보, 人間環境에의 적합성의 증가 등은 現代建築의 動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풍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建築에 있어서 地域性을 내포한다는 것은 地域, 集團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며, 순수 建築文化를 보다 가치있는 上位의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3) 住居建築의 地域性은 인간이 과거로부터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生活의 경험에서 획득된 지혜가 축적되어 있어 충분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진보에 대한 근본적인 추진력이 된다고 할 수 있

며, 住居建築의 地域性에 대한 이해는 現代의 住居建築에 있어서도 훌륭한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現代 住居建築에서의 地域性的의 受用은 現代 建築에서의 傳統 受用과 동일한 맥락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理論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또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形態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地域性은 수 많은 現代建築의 思潮 속의 하나가 아니라 建築의 本質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김홍식, 民族建築論, 한길사, 1987.
2. 박운성, 住居論, 文運堂, 1987.
3. L.Mumford, 김문환 譯, 藝術과 技術, 乙有文庫, 1979.
4. A.Hauser, 백낙청 外譯,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古代篇), 창비사, 1976.
5. C.Moore et al, 곽해선 譯, 住宅의 場所性, 國際出版公社, 1987.
6. C.Norberg-Sohulz, Intention in architecture, MIT press, 1977.
7. A.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8. B.Rudofsky,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ures, Doubleday Co, 1964.
9. 임창복, 韓國都市 單獨住宅의 類型的 持續性和 變用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博士論文, 1988.
10. 李重雨, 體, 用思想에서 본 住居空間의 變用에 관한 研究, 漢陽大 博士論文, 1988.